

**[H 갤러리]**

**NOVEMBER COLLECTION**

**11. 1. – 11. 30.**

**PHILIP. HAN.**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1. 1. 화. 라퐁텐 우화에 수록한 에칭 판화 감상**



The Fox and the Bust. Goldmark Catalog

17 세 프랑스 시인이고 동화작가로 알려진 라퐁텐은 시 보다 동화 보다 '우화 작가'로 명성이 더 높다.

그가 남긴 200 여 편 이야기에서 21 세기 우리 모습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어 더 흥미롭다.

특히 당시 귀족을 풍자하고 세태를 꼬집는 애깃거리는 차 한 모금을 오물거리는 짧은 시간임에도 그 통찰력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여우와 흉상 편도 여기에 속한다.

귀족 흉상을 본 당나귀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표현력은 위트 만점이다. 반면에 애기의 주인공 여우는 조각가 노력을 찬양하지만, 한 마디 남긴다. "실제 인간보다 더 큰 흉상이구나. 참 멋진 모습이야. 그런데 머릿속은 비어 있구나."라고 말이다.

애기 말미에 '높은 귀족 나라들이 이런 흉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며 라퐁텐은 글을 마친다. 가볍게 읽는 애기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남기는 우화는 정말 매력적이다.

[영문] The Fox and the Bust

The great are like the maskers of the stage;  
Their show deceives the simple of the age.  
For all that they appear to be they pass,  
With only those whose type's the ass.  
The fox, more wary, looks beneath the skin,  
And looks on every side, and, when he sees  
That all their glory is a semblance thin,  
He turns, and saves the hinges of his knees,

With such a speech as once, 'tis said,  
He utter'd to a hero's head.  
A bust, somewhat colossal in its size,  
Attracted crowds of wondering eyes.  
The fox admired the sculptor's pains:  
'Fine head,' said he, 'but void of brains!'  
The same remark to many a lord applies.

[한글 판. 시공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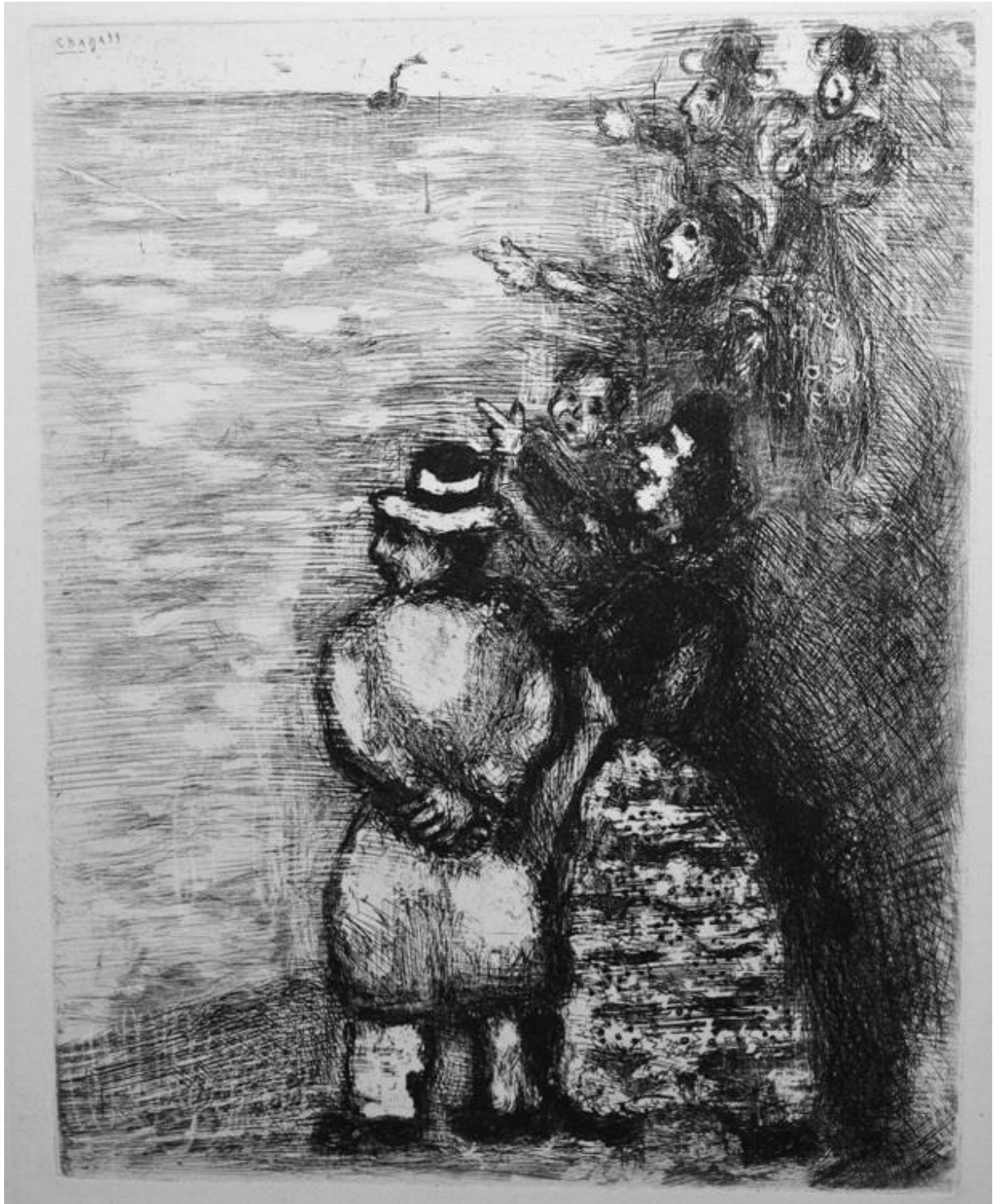
귀족들은 대부분 연극에 나오는 가면들과 같다.  
귀족의 걸모습은 우상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한다.  
당나귀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밖에 판단하지 못한다.  
여우는 그와 반대로 가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뒤집어보기도 한다.  
그러고는 그들의 행위가 단지 겉치레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곧바로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텅 비고, 실제의 인간보다 더 큰 흉상이구나."  
여우는 조각가의 노력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참 멋진 모습이다. 그러나 그 머릿속이 비어 있구나."  
얼마나 많은 높은 귀족 나라들이 이런 흉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Marc Chagall(1887 러시아 제국 – 1985, 프랑스)

11. 2. 수. 낙타와 떠 다니는 막대기



The Camel and the Floating Sticks. Goldmark Catalog



Spaightwoodgalleries

Spaightwood Galleries 는 1980 년 Andy Weiner 와 Sonja Hansard-Weiner 가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설립. 2004 년 Upton Massachusetts 의 아름다운 부지로 이전.

낙타를 처음 보면 도망치던 사람이 두 번째는 다가가고, 세 번째 보면 낙타를 부리려고 한다며 익숙해지는 것은 친금함을 뿜내는 것이라며 내친김에 얘기

하나 더 하겠다는 라퐁텐. 그가 꺼낸 얘기는 바다를 감시하는 사람이 멀리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체를 보고 큰 선박이라고 하더니 그 물체가 파도에 실려 가까이 다가오면 큰 배보다 작은 배가 되었다가 마침내 손 닿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냥 막대기였더라면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여도 다가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에는 많으며 우화로 남긴다고 말했다.

라퐁텐이 21 세기를 사는 우화 작가로 살아 있다면 바다는 인터넷이 되고 감시자는 사용자 즈 될 터다. 그럼 막대기는 뭘로 말할까 싶다. 1 분 동안 업로드 되는 적어도 500 시간 이상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 아니면 50 만 건 이상 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개 수일까. 어쩌면 그 동영상이며 스토리를 보는 것에 만족한 라퐁텐이 이 우화 마지막 부분을 멀리서 봤을 때 대단해 보여 다가가서 보니 더 재미있고 유익하더라라며 애초의 주장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것은 우화라기 보다 소감에 불과하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잠언 같은 이 얘기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속임수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라퐁텐이 살던 그 당시는 대항해 시대였다. 수평선 너머 어떤 땅은 금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허풍에 속아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꽤나 많은 시대였다. 열 척의 배를 띄우면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는 한 두 척에 불과했다. 그것이 실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실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현실 보다 대단해 보이는 허상을 쫓았다.

그 점이 라퐁텐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라퐁텐이 살고 있어도 결말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멀리서 보면 대단한 것 치고 다가가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많다. 17 세기에 끝난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이다.

[영문] The Camel and the Floating Sticks

The first who saw the humpback'd camel

Fled off for life; the next approach'd with care;

The third with tyrant rope did boldly dare  
The desert wanderer to trammel.  
Such is the power of use to change  
The face of objects new and strange;  
Which grow, by looking at, so tame,  
They do not even seem the same.  
And since this theme is up for our attention,  
A certain watchman I will mention,  
Who, seeing something far  
Away upon the ocean,  
Could not but speak his notion  
That 'twas a ship of war.  
Some minutes more had past,  
A bomb-ketch 'twas without a sail,  
And then a boat, and then a bale,  
And floating sticks of wood at last!  
Full many things on earth, I wot,  
Will claim this tale, and well they may;  
They're something dreadful far away,  
But near at hand they're not.

[한글 판, 시공사, 2004]

처음으로 낙타를 본 사람은 이 새로운 동물을 보고 도망을 쳤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타를 보았을 때는 감히  
낙타를 부리기 위한 굴레를 만들 생각을 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아주 친근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도  
마침내는 우리의 눈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기왕 언급한 김에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



바닷가에서 감시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보고는 한 강력한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조금 지나자 그 물체는 화선이 되었고, 점차 작은 배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작은 고리짝이, 마침내는 파도 위에 떠다니는 나무 막대기들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이 이야기에 부합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 Epilog

스마트폰 새것으로 바꾸고 달라졌다. 사진 찍고 보정하는 재미는 생겼고, 샤갈 에칭 판화 보는 재미는 사라졌다. 새것에 관심을 쏟는 일은 호기심과 열정을 끌어 올리는 데 제격이지만 하던 일을 마저 끝내지 못한 것은 진득함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잃었는가를 따지고 물을 일은 아니지만, 굳이 손실을 계산하면 사진 보정을 하면서 내 감성을 색으로 표현하는 일이 즐거웠고,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셔터를 누르기 보다는 거실에 두고 볼 만한 작품을 만들자라는 다짐이 생겼다. 그깟 사진 몇 장 찍고 전문가 흉내를 낸다.

올해 시작하며 샤갈 그림을 여러 각도로 탐독했다. 그림을 읽었다라고 한 까닭이 있다. 어느 때부터 그림을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작품을 보며 흥미로웠던 작품과 나와 교감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이다. 그 결과 작품을 논하고 평하려고 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평론가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그림 보는 일마저 일이 될 듯 싶었다.

내게 그림은 우연이 들어온 고양이 같은 존재였다. 서로 삐죽삐죽 하다가도 어울려 놀고 놀다가도 새침하게 돌아서고 다시 곁을 쫓다가 무관심도 했다가 한

계절을 보내고 어느 날 사라졌다가 뚝망스럽게 다시 나타나서는 언제 그랬냐듯이 냐옹~ 한 소리 내면 분노함 억울함 복받침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일이 일 같지 않고, 내 피부 같고 숨소리 같고 잠이었다가 밥이었다가 담배도 되었던 그런 존재 였다. 이것을 잃을까 싶어 스마트폰을 핑계 삼은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제니퍼 로버츠 예술사 교수 수업은 '응시 Stare'가 수업 방식이다. 한 예술 작품을 3 시간 동안 응시한 후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한 방식으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내가 그림을 보지 못하고 탐독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찾았다. 고양이 같은 존재의 그림과 나 사이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었다.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과 나 사이에는 꽤 들음 직한 이야기가 있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응시하며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시한다.

[H 갤러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 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더 보내면 인사말 끝에 '아듀-!'를 더하겠지요. 성탄절을 보내기 전까지는 들뜬 마음이었다가 곧 차분해 질것이고요.

한 해 참 빨리 가죠. 말 못 할 속 사정도 있었고 후련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한 일은 알게 모르게 서로를 응시하며 지냈다는 일 같습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후한 인심을 보여 주신 일 말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